

치앙마이에서 온 편지(5)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4:4)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지 벌써 3년, 끝날 줄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수십만 명의 확진자 소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너무 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주 절망하는 선교적 현실 등등.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기뻐하라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동부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이곳 치앙마이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간간히 내리는 비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할 때는 여지 없이 1시간 이상 전기가 나가서 집 밖 시원한 곳을 찾아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특별히 주일 집회와 성도의 교제를 어렵게 함으로 영적인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은교회는 3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직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동역자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위에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새생명반(화요일)과 기초성경공부반(수요일)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책별 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중국어로 된 성경공부 교제가 없어서 제가 직접 연구하고 준비해서 교제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요청으로 로마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어로 정리한 후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교제를 만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영적인 침체 기간 동안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도들을 독려하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인내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중국인들이 이곳 치앙마이로 올 것을 대비하여 전도와 양육을 위한 일대일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 훈련하여 일대일 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대면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모임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가 없어서 어른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가 설교시간에만 따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별도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은 전체를 인도할 사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나 교사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주일학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일학교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저의 중국인 교회 사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비자문제입니다.

최근 어느 종교단체를 통해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자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단독 건물을 임대하여 마음껏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중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태국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선교에 저와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문은석 선교사 드림